

‘세계’라는 사상의 기원과 그 불가능성*

— 장혁주/野口赫宙의 「협박」(1953)과 『편력의 조서』(1954)를
중심으로

최 석 열**

요약

이 글은 장혁주의 민족관을 중심으로 그의 자전적 소설 「협박」과 『편력의 조서』를 분석하여 작가의 재일 경험이 그의 문학적 실천과 사상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장혁주는 초기 창작 활동에서 프로문학을 통해 민족 문제를 다루었으나, 식민지 말기에는 오히려 민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민족관이 지닌 특징은 식민지를 벗어나 제국/일본, 혹은 반드시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의 (불)가능성을 떠나, 민족(주의)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은 분명하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글은 그의 자전적 소설 「협박」(1953)과 『편력의 조서』(1954)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협박」을 통해 그의 민족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협박」에는 작가가 바라보는 제국-식민지 체제와 해방/패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의 모습과 그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작가의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편력의 조서』에 나타난 ‘재일’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그의 민족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 이 글은 2024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BK21+ 연구팀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어, 2024년 8월 22일에 개최된 <폭력·기억·증언·청산: 다시 보는 동아시아의 포스트/식민주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발전시킨 논문이다.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안자코 유카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글이 될 수 있도록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 조은에 선생님과 익명의 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이 글은 장혁주의 민족관과 재일의 경험이 그의 문학적 여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조명하고, 작가의 '세계'라는 사상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민족주의, 장혁주, 제국 일본, 제국-식민지 체제, 마이너리티, 해방, 패전, 민족

목차

1. 장혁주 문학 재해석의 필요성
2. 민족정신이란 무엇이었는가: 「협박」을 통한 질문
3. '세계'라는 사상의 기원: 『편력의 조서』에 나타난 '재일'과 '민족'
4. 개인의 영달 혹은 이방인의 고독, 세계라는 '사상'의 불가능성

1. 장혁주 문학 재해석의 필요성

작가 활동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줄곧 장혁주를 지배했던 것은 민족(주의)을 벗어난 '세계'라는 사상의 실현이라는 것이 이 글의 커다란 전제이다. 작품 창작 초기 그는 프로문학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민족 차별 문제에 대한 글을 쓰긴 했으나, 식민 말기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조선(인)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의 민족관은 동조동근론을 기반으로 제국 일본의 내선일체를 옹호하고 맹목적으로 제국 일본에 편입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민족관이 지닌 특징은 식민지를 벗어나 제국/일본, 혹은 반드시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의 (불)가능성을 떠나, 민족(주의)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은 분명하다.

이 글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해방/패전 이후 발표된 장혁주의 자전적

소설 「협박」(1953)과 『편력의 조서』(1954)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두 소설은 지금까지 장혁주 연구에 있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¹⁾ 그러나 장혁주의 자전적 소설은 그의 민족관 혹은 작품 창작의 주체로서 문학에 투영시킨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기원, 그것의 발생을 둘러싼 구조론적 동학, 그리고 사상의 향배(向背), 최종적으로는 그것의 자기 완결성에 대한 회의와 성찰’이 매우 솔직하고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 작가의 문학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그의 민족관은 작가 생애 동안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일정한 궤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말년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작품 창작 초기부터 별 세하기까지 60년에 육박하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작품 세계 안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민족관은 무엇이며, 그 사상의 근본적인 계기 혹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그 기원에 유소년 시절부터 겪은 일본에 관한 경험과 재일(在日)의 경험이 놓여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장혁주 민족관의 기원과 그 의미를 읽어내고자 그 계기적 단초인 ‘재일’ 경험 자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흔히 재일조선인 작가는 식민중주국 혹은 국민국가 일본에서 살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그를 토대로 창작 활동을 했던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한국 문학사는 실재하는 재일 문

-
- 1) 특히, 『편력의 조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주된 텍스트로 삼는 대부분의 연구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여성’ 편력에 초점을 맞춰, 여성에 대한 열등의식이 결국 작가를 ‘친일’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하거나, 작가 자신의 윤리적 과오에 대한 자기변명 혹은 ‘고백’의 형식을 빌려 행동에 대한 필연성을 강조하는 소설로 평가하고 있다. 장혁주의 여성 편력, 즉 생모에 관한 문제는 이후 작가의 도일과 민족관 형성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작가 장혁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자양분 삼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김학동, 「張赫宙 문학의 정서적 배경: 親日로 표출된 生來의 열등의식과 早婚의 갈등」, 『日語日文研究』 64, 2008; 김학동,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의 『편력의 조서』(編歷の調書)론-가족에 대한 회한의 해소를 위한 자학적 글쓰기」, 『인간연구』 16, 2009.)
- 2) 한수영, 『사상과 성찰』, 소명출판, 2011, 5면.

학이 어느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게 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사량·고사명·김석범 등의 작품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형으로 기억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에서 ‘재일’이라는 경험은 투철한 민족의식이나 타관에서의 민족애와 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투사되어 협력/저항 혹은 피식민지인의 차별과 수난의 기록된 것만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의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착시의 효과로서의 재일 문학의 일반화된 범주는 친일/협력의 이력을 가진 장혁주의 작품뿐 아니라 실재하는 재일 문학이 지닌 다채로움(비)의도적으로 지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착시는 이들 연구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키워드인 ‘재일’이 가지는 그대로의 의미를 은폐·탈각시키고, 그 공백에 ‘민족주의’나 ‘제국주의’ 같은 ‘주의(主義)’만을 배치할 위험을 지닌다.³⁾ 물론, 현재 식민지 시기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에 의한 이항 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3)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재일디아스포라’ 작가 혹은 작품 선별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시리즈에서 ‘재일디아스포라’로 선별된 고사명·김사량·김석범·정승박·김창생 등은 그들의 작품이 전부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흔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작품을 창작했거나 해방 이후에도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작가들이다.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컬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소명출판, 2018, 참조.) 물론, 이 문학선집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투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여성 작가 후카사와 가이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이는 재일 문학이 가진 다양함과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한 동시에, 여성의 재일 경험과 글쓰기에 주목하여 역사에 ‘소리 없는 목소리’(송혜원,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재일 문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자장에서 탈피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디아스포라’라면, 그리고 디아스포라 문학을 지나치게 민족이나 조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의 다면성을 훼손하는 독법일 수도 있다면(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문학에 나타난 탈민족주의와 트라우마』, 『한민족문화연구』 36, 2011.), 누구를, 그리고 어떤 ‘이력’을 가진 작가를 재일 작가로 선택하고 호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섬세한 고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디아스포라’ 문학은 작가의 역사의식, 성별, 민족의식, 그곳에서의 감각 혹은 세대까지, 그 차이에 따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이주 경험은 윤리적 잣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남긴 상흔이기 때문이다.

는 논의는 도발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⁴⁾ 그러나 적어도 식민지 지식인, 특히 장혁주와 같은 이력을 가진 작가에 한해서는, 재일 경험이 중요한 문학적 원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부에서의 경험 자체와 그로 인해 형성된 사상이나 욕망, 무의식 등이 어떻게 문학에 투영되어 있는지 섬세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은 말 그대로 일본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말해 일본을 생활공간으로 삼아, 그곳에서 구조되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일본 거주 경험이 있는 문학가의 재일 경험 ‘자체’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일상을 탐구하고 그를 통해 형성된 작가의 사유 그리고 그것이 문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도일(渡日)하여 그곳에서 ‘정주(定住)’해야만 했던 장혁주 역시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면서도, 빠르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익혀 그 ‘내부인’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였다. 그는 일본으로 이주한 다른 조선 민중들처럼 새롭게 재편된 일상에서 생활을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

4)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친일/반일, 협력/저항의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혁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도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참조. (시라카와 유타카, 『張赫宙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철,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장혁주와 김사량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2006; 신승모, 「도쿄 이주(1936년) 후의 장혁주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의 모색-연속과 변용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0, 2006; 신승모, 「식민지기 일본어 문학에 나타난 ‘만주’ 조선인상-만주를 바라보는 동시대 시선의 제상(諸相)」, 『한국문학연구』 34, 2008; 김지영, 「하나의 해방, 두 개의 시선」,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장세진, 「귀화의 에스닉 정치와 알리바이로서의 미국 ‘해방’ 이후 장혁주의 선택과 「아, 조선(嗚呼朝鮮)」(1952)-」, 『현대문학의 연구』 45, 2011; 김지영, 『장혁주 일본어소설 연구: 「인왕동시대」, 「우수인생」, 「노지」, 「개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임태훈, 「상호 교환되는 해방 국민과 귀화 국민: 장혁주의 「협박」(1953)에 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 78, 2019; 조가유,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 소설의 리얼리즘 연구-「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2021.) 장혁주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일본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보인다. (曹恩美, 「在日朝鮮人青年の憂愁: 張赫宙作 「岩本志願兵」 をめぐって」, 『言語・地域文化研究』 16, 2010; 梁姪淑, 「張赫宙 「脅迫」 論-実存的不安をめぐる作者の軌跡」, 『昭和文学研究』 62, 2011.)

했다. 그는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재편되어 혼란스러운 내지 생활에 빠르게 뿌리 내리기 위해 낯선 내지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또한 내지 문단에서 인정받는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조선인이었기에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지는 내지인들의 교묘한 조선(인) 차별 문제와도 마주해야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경험은 최초에 이주했던 이유를 떠나서 식민중주국의 일원이자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개인의 욕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이주란 여타 다른 조선인들처럼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문학에 재현된 재일 경험은 제국-식민지 체제에서의 민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정치적 상상력의 바깥에 존재하는 ‘잔여’이자 역사적 결락으로 해석할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 내장된 재일의 경험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장혁주의 자전적 소설은 기존 연구에서 작가의 친일/협력 활동에 대한 자기변명의 소설이자 불우한 생애를 앞세워 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가가 일본 문학 특유의 ‘고백’ 형식을 빌려 쓴 소설이라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친일/협력으로 평가하는 잣대를 거두어내면 소설을 다르게 읽을 여지가 있다. 사실을 적은 기록의 조서라는 제목의 의미처럼, 이 소설에는 제국-식민지 체제를 지나 해방/패전,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그곳에서 파생된 ‘민족’과 ‘국민국가’ 등의 문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작가의 내면이 산재되어 있지만, 하나의 일관성을 이루며 솔직하게 재현되어있다. 이처럼 그의 문학에는 여러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여 재일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장혁주 개인이 어떻게 전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민족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복잡하게 뒤섞여 재현되어있다.

아도르노는 일찍이 개인의 사고는 시대의 일반적인 문화의 일부이면서, 한편 개별성으로 인해 자체의 추진력을 가동시켜 일반적인 것을 비껴나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⁵⁾ 식민자를 모방했던 피식민지인의 개인적이고 무력한 사고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혁주의 문학 역시 당시 일본에 거주했던 각각의 조선인의 삶과 기록들처럼, 친/반, 협력/저항 혹은 의사(擬似) 제국주의라는 조감도 안으로만 끌어들이 수 없다. 그러하다면 이분법적인 선택만이 강요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의 텍스트, 즉 “이분법적 선택을 선택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갈 용기⁶⁾”가 나타난 그의 문학과 사유 역시 제대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력의 조서』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조선인이 그들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일상에 동화되는 것을 일종의 구원이자 축복으로 느낀다. 또한 단편 「협박」에서 장혁주는 해방/패전 이후 일본인과 귀화한 조선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제일 조선인의 모습을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국주의자의 모습과 겹쳐 보기도 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만약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장혁주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교정은 필요하겠으나, 당대에 그가 목격했던 제국과 식민지의 모습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견고한 프레임을 걷어낸 채로 장혁주의 문학을 본다면, ‘재일’이라는 경험을 통해 작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끊임없이 폭력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민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장혁주는 작품 창작 초기 「아귀도」(1932)와 같은 작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민족 해방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고, 식민 말기에는 「이와모토 지원병」(1944)과 같은 작

5) 아도르노의 언급은 에드워드 사이드, 정호연 옮김,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마티, 2023, 38면 참조.

6) 손영희,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25, 2020, 79면.

품을 통해 그들에 영합하는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작가의 태도나 창작 방법의 변화는 식민지 말기 많은 조선인 문학자가 보여주었던 특수한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매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그의 문학적 실천을 작가가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실험 혹은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본다면, 읽어내야 할 것은 그의 문학이 지닌 모순과 착종, 그리고 그것의 종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장혁주의 여러 행적과 문학을 재구성함으로써, 장혁주를 새롭게 이해하고, 나아가 작가 장혁주의 내면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해 쓴다. 이 글이 그의 민족관을 다시 보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는 ‘재일’ 경험과 그로 인해 작가가 나름대로 정립한 사상을 통해 그의 내면 의식과 문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며, 이는 결국 당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민족 정체성과 이주/정착/귀환 등에 관한 문제와 그를 토대로 한 문학적 경험을 풍요롭게 전유하는 일과 긴밀히 이어져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협박」에 나타난 그의 민족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소설 「협박」에는 거의 처음으로, 작가의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의 혼란, 그로 인해 발생한 작가의 민족관이 매우 솔직하고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결국 그가 문학적 실천을 통해 평생을 걸쳐 실현하고자 했던 사상이다. 다음으로는, 『편력의 조서』에 산발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재일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이 경험이 작가의 민족관과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있는지, 또 그것의 기원에 대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민족정신이란 무엇이었는가: 「협박」(1953)을 통한 질문

일본으로 귀화 후 40여 년이 흐른 뒤, 장혁주는 완벽한 일본어 문장의

완성이라는 작가의 오랜 소망을 버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총 네 편의 영어 장편소설⁷⁾을 창작하기로 계획한다. 이는 작가가 말년에 다시 언어적 전환, 나아가 작품 세계의 ‘확장’을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시라카와 유타카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장혁주는 자신의 긴 작가 생활을 돌이켜 자신의 작가적 세계를 1시기 장혁주, 2시기 野口赫宙, 3시기 カク・チュウ・ノグチ, 세 시기로 구분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서신에서 주목할 것은 작가가 말년에 계획한 영어 장편을 두고 “이번에 출판된 2권만 있으면 이제까지의 모든 작품이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러기를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다. 이에 그는 2개 국어로 쓴 작가는 있어도, 3개 국어로 쓴 작가는 본인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한다.⁸⁾

장혁주 본인이 명료하게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외래어로 표기한 것과 그 이름으로 발표된 영어 소설에 대한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면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어로 간행된 소설 외에 모든 작품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그의 언급은, 결국 カク・チュウ・ノグチ의 이름으로 발표된 ‘영어’ 장편은 돌출적으로 확장된 작가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어져 왔던 작가의 문학적 실천이 비로소 말년에 와서야 ‘중착’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문학이라는 행위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의 소설들이 전부 유기적 연관성이 있거나 소재와 주제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럴 이유도 없지만, 식민지 시기와 해방/패전을 지나 영어 소설이 간행되기까지의 문학이

7) 그가 계획했던 네 편의 장편 소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Rajagriha(or Cry of Ganges)-A Tale of Gautama Buddha- ② Forlom Journey(or Kirisitan) ③ Ancient People of Americans and Asians ④ Which God is Real?) 이 중 다음 두 편이 인도에서 출판되었다. (Noguchi, Kaku Chu, 『Forlom Journey(or Kirisitan)』, New Delhi: Chansun International, 1991; Noguchi, Kaku Chu, 『Rajagriha: A Tale of Gautama Buddha』, New Delhi: Allied Publishers, 1992.)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46-348면 참조.

모두 하나의 종착을 위한 시행착오였다면, 그 끝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혁주의 「협박」, 『편력의 조서』, 『폭풍의 노래』(1975)와 같은 자전적 텍스트는 주로 역사 속에서 장혁주 자신이 저지른 친일, 귀화에 대한 자기합리화 및 자기변명의 텍스트로 읽혀왔다. 물론, 그의 텍스트를 자기합리화/변명의 텍스트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 비관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미 ‘일본인’이 된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집요하게 써나갔던 그의 행동을 단순히 자신의 윤리적 과오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로만 보는 것 역시 그의 문학이 가진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자전적 성격을 지닌 서사를 통해, 허구성 짙은 소설 양식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장,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한이나 성찰, 즉 작가의 사상의 자기완결성에 대한 지향과 문학적 실천 사이의 ‘가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편 「협박」은 1953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장혁주가 공식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귀화를 승인받은 직후이다. 즉 이 소설은 조선인 장혁주가 아니라, 제2기의 일본인 노구치 카쿠추의 소설이다. 「협박」에는 제국-식민지 체제를 지나 패전, 한국전쟁, 그리고 귀화를 통한 일본에서의 생활 등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혁주 나름대로 정립했던 ‘민족’에 관한 사유가 매우 솔직하게 그려져 있다. 이 글은, 이 소설을 작가의 ‘종착’이자 실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사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재현된 최초의 텍스트라고 본다. 소설이 지닌 이러한 시간성과 특성으로 인해, 이 소설은 ‘조선인’이면서도 ‘경계인’이었던 장혁주, 나아가 ‘일본인’이 되었지만 ‘세계인’을 꿈꾸었던 후기 노구치 카쿠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의 내면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소설 「협박」을 통해 그의 민족관을 살핀다.

장혁주의 「협박」에는 자전적 인물 장광성이 등장한다. 소설의 기본 골자는 해방/패전 이후 재일조선인 단체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 관계이다.⁹⁾ 소설은 제국의 언어로 창작을 하던 장광성이 일본의 패전 후 그러한 이력 때문에 ‘조련(재일조선인연맹)으로부터 암살 통보를 받고 민단(재일조선 인거류민단)에도 “조국을 이탈”한 “민족의 배반자¹⁰⁾”로 낙인찍힌 사실을 회상하는 형식이다. 소설에는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조선인들의 언어 사용에 관한 딜레마¹¹⁾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주인공의 민족관이다. 이는 결국 작가의 민족관과 깊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자, 소설을 통해 작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인공 ‘나(장광성)’의 민족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출발한다면 어찌 되겠지 하는, 일본의 마음을 버리고 조선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도 자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하고 털어놓은들 도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다.

조선민족의 손으로 조선을 세우고, 조선어와 풍습, 문화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며 그것만이 절대 유일하고, 자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반대하는 사상과 행동을 취하는 자는 증오의 대상이며 민족의 반역자로, 내가 만일 일본어를 위해 일본의 마음을 갖고자

9) 소설이 재일조선인 단체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단체 내외의 길항관계 등 외부적 맥락이 세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보다는 주인공의 ‘민족관’에 초점을 둔다. 재일조선인 단체와 주인공 장광성의 갈등 관계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임태훈, 「상호 교란되는 해방 국민과 귀화 국민: 장혁주의 「협박」(1953)에 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 78, 2019 참조.

10) 장혁주, 「협박」, 249면.

11) 「협박」에 나타난 언어 문제에 관해서는 신서영, 「장혁주의 소설 협박(脅迫)에 나타난 ‘민족’과 ‘언어’에 대한 고찰」, 『문화와 융합』 43, 2021 참조.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나를 갈갈이 찢어놓고 싶다는 증오로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또한, 내게 거짓이나 위선이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언가 불쾌한 느낌을 줄 것이 분명하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였다.¹²⁾

인용문은 조련 사무국¹³⁾에서 위원장과 마주했을 당시 주인공 장광성의 독백이다. 주인공이 작가의 자전적 인물로 설정되었던 만큼, 소설 속에서 장광성은 내지 문단에서 제국의 언어로 창작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인용문에서 장광성은 ‘일본의 마음을 버리고 조선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어를 위해 일본의 마음을 갖아야 함을 주장한다. 인용문에서 장광성은 자신이 ‘일본의 마음’을 갖고자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민족’ 중심의 국가 만들기 이념에 반한다면 제일 조선인들은 무언가 불쾌함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항상 제일조선인들의 폭력을 예감하며 주눅 들어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장광성은 ‘자민족’ 중심만이 ‘결작품이며 유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이나 ‘위선’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장광성이라는 인물이 가진 특징을 살펴 볼 때, 그는 조선/일본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족(주의)’

12) 장혁주, 「협박」, 호테이 토시히로 엮음, 『장혁주 소설 선집』, 태학사, 2002, 265-266면. (이하 「협박」으로 표기)

13) 호테이 토시히로가 엮은 『장혁주 소설 선집』에는 제일 조선인 단체 이름이 ‘제일조선인연맹’ (약칭 조련)이 아닌,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임태훈은 ‘조총련’은 1955년 결성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1953년에 발표된 「협박」에 이 단체가 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다. 그의 주장대로, 작품에 등장하는 단체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 장광성이 사무국을 해방 후 두 달 뒤에 방문했다고 서술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단체는 1945년 10월 15일에 동경 히비야 공회당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결성된 ‘조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태훈, 위의 논문, 2장 참조.)

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그의 민족관과 그에 기인한 행동들은 작품 초반부터 말미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작품 속에서 장광성은 조선민족의 비참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민족 해방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민족이 지닌 추악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검열이 비교적 유연했던 일본에 작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어 창작을 했다는 이유로 조선 문단에서 조선민족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민족의 배반자가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암살 협박을 받게 된다. 장광성은 기차 옆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 아닐까. 조련이 자신의 집에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을까 일상의 매순간을 숨죽이면서 살아간다. 또한 자신이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본과 교섭하여 제일 조선인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등 조선인의 편에 서준다면, “승진의 길이 열리”고 “반역죄를 덜게 되¹⁴⁾”는 것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장광성은 민단의 신문에 일본인들 혹은 ‘친일파’라고 낙인찍힌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흔히 “구 일본의 국수주의와 닮아 있¹⁵⁾”는 조련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내 자신이 어느 민족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민족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심한다.

그 자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여 있는 것이며,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국제주의를 취하면서 코스모폴리탄은 안된다는, 그리고 조련이라 하더라도 일본 공산당에 소속하기에는 민족주의를 추월하고 있는데도, 나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란 말인가.

이러한 뿌리깊은 민족정신이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추월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14) 장혁주, 「협박」, 280면.

15) 장혁주, 「협박」, 272면.

이제 됐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둬시다. 귀화하던 안 하던 당신과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느냐고 내가 말하자,¹⁶⁾

그와 같은 동향 출신이자 일본에서 소주의 밀조(密造)를 하면서 살고 있는 ‘최’는 장광성의 일본으로의 ‘귀화’가 승인되었다는 신문을 들고 그를 찾아간다. 귀화가 사실이나는 ‘최’의 질문에 장광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을 들은 ‘최’는 자신의 마을의 당원들이 장광성을 반동분자로 처벌하기로 결정 내렸다는 사실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최’는 재일 조선인 공산당원들이 “귀화를 허락한 자는 모두 반동¹⁷⁾”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장광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여’ 귀화하는 모든 자들을 반동분자로 취급하는 조선(인)에게 뿌리 깊게 박힌 ‘민족정신’에 끝없이 우울해 한다. 이 우울로 인해 장광성은 비로소 민족주의의 실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고, 그것의 실현 (불)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민족정신을 초월할 혹은 그것이 무화된 ‘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인용문의 대화는 그림에도 우리의 사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장광성의 말에 ‘그건 그렇습니다만’ 하며 허풍스럽게 웃는 최의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인공의 재일 조선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1949년 12월 일본 잡지 『世界春秋』에 실린 장혁주의 글 「在日朝鮮人の批判」을 참고하면 이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장혁주는 “언어맞고 죽임을 당해”도 “일본의 경찰은 방관하고 보아도 못 본 척, 결코 단속에 나서주질 않¹⁸⁾”고 오히려 재일 조선인들을 국민국가 바깥으로 내던지고 배제하는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

16) 장혁주, 「협박」, 283면.

17) 장혁주, 「협박」, 283~284면.

18) 장혁주, 「在日朝鮮人の内幕」, 『新潮』, 49(3), 1952.3. (장세진, 앞의 논문, 47면 재인용.)

서도 동시에 해방/패전 이후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부 재일 조선인의 행태와 그들 사회 내부에서의 민족 대립과 분열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위의 글에서 “조선의 중앙사무국에 들어간 공산주의자들은 아직 막연하기만 한 민족주의자들에 묻혀 시류에 동참하고 있을 뿐, 그들의 투쟁은 “사상의 차이가 아니라 탐욕과 감정의 반목”, 즉 실제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말한다. 물론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거침없는 언급은 당시 장혁주 자신이 ‘점령당국에 대해 재일 조선인 일반과 구별되는 자신의 발화 위치의 안정성(securiety)와 신용을 확보¹⁹⁾’에 대한 생각, 혹은 당시 미일합작 권력에 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²⁰⁾ 그러나 장혁주의 발언은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특수한 위치로 인해 가시화될 수 있었던 당대의 현실, 즉 재일 조선인의 난폭성이 일본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선호하는 보도 주제²¹⁾가 되어 가는 세태를 재일 조선인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폭력성으로 인해 당시 차별 등 조선 민족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그의 조선 민족에 대한 비판의 목적은 조선인들의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인 ‘민족정신’은 일본 입장에서는 천황제 중심 국민국가 만들기의 일환인 ‘에스닉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그것에 정당성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있었다.²²⁾

19) 장세진, 「귀화의 에스닉 정치와 알리바이로서의 미국」, 43면.

2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세진, 앞의 논문 참조.

21) 박진우, 「패전 직후 천황제 존속과 재일조선인」,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 와 냉전』(김광열, 박진우, 윤명숙, 임성모, 허광무), 2006. (장세진, 위의 논문, 48면 재인용.)

22) 이처럼 일본과 조선민족을 동시에 비판하는 장혁주의 태도는 제국-식민지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33년 12월 『개조(改造)』에 발표된 「권이라는 사나이」에서 그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그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는 조선인 역시 비판하였다.

이러한 장혁주의 입장은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다. 주지하다시피 그의 초기작이 프로문학에 기반을 두고 민족 해방을 주제로 삼았다. 식민 말기 장혁주가 ‘제국’에 기반 “진정한 내선일체²³⁾”를 내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도 줄곧 이어져 온 민족 해방에 대한 작가의 고민의 연장이었다. 이는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를 예찬하며 그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가 “단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이미 확고하게 구조된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조선민족의 행복²⁴⁾”을 찾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내선일체’가 ‘내지의 연장’으로 완전히 일본에 동화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순응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일본 쪽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 조선의 것을 함께 지켜내는 새로운 일체에 대한 지향을 고민했다.²⁵⁾ 그의 민족에 대한 고민은 제국 일본의 이데올로기 내에서만 상상될 수 있다는 모순이 노정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장혁주의 내면에서 일관된 궤적을 이루며 형성되었고 이는 노년 장혁주의 세계라는 ‘사상’의 토대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장 서두에 언급했던 장혁주의 서신으로 돌아가 보자. 시라카와는 장혁주가 자전적 소설 『폭풍의 노래』(1975)를 발표한 뒤에, ‘새로운 작가적 세계’를 모색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한 ‘새로운 작가적 세계’란 ‘민족’의 역사적 뿌리 찾거나 세계적인 시각에서 본 종교의 위치 등 보다 보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²⁶⁾ 시라카와는 이러한 그의 행보가 “민족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세계²⁷⁾”를 지향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라카와의 지적대로 장혁주는 말년에 이르러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창작한다. 그러나 작가의 ‘세계(인)’라는 상상

23) 장혁주, 「조선의 지식인에게 호소함」, 『문예』, 1939.02.

24) 장혁주, 「「조선의 지식인에게 호소함」의 반향에 답함」, 『제국대학신문』 757, 1939.

25) 신승모, 「도쿄 이주(1936년) 후의 장혁주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모색-연속과 변용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0, 2006, 21-22쪽.

26) 시라카와 유타카, 위의 책, 303면.

27)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48면.

력은 말년에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 작가가 서신에 한 ‘영어’ 창작 소설만 있으면 지금껏 창작했던 작품들은 없어져도 괜찮다는, 도리어 그러길 바란다는 언급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 아니라, 작가의 일생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세계’라는 사상의 자기 완결성에 대한 지향이 여러 절차를 거쳐 비로소 종착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정신에 관한 회의 그리고 그것을 무화해야 한다는 작가의 욕망이 담긴 텍스트 「협박」은 작가가 실현하고자 했던 ‘세계(인)’이라는 사상 혹은 상상력이 드러난 최초의 텍스트이자 종착에 닿는 과정에 있는 ‘기착지(寄着地)’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말년에 작가가 내면에서 비로소 완성했다고 믿은 이것은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60년에 육박하는 긴 작가적 생애 동안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세계’라는 사상의 기원: 『편력의 조서』에 나타난 ‘재일’과 ‘민족’

해방/패전의 공간에서 발표된 野口赫宙의 「협박」을 지나 말년의 카ク・チュウ・ノグ치가 가졌던 ‘세계(인)’이라는 사상의 기원에는 소년 시절 ‘장혁주’의 ‘일본(어)’ 경험, 나아가 이후 일본으로의 이주 경험이 놓여 있다. 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혁주의 민족관이 지닌 하나의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집단에의 소속을 욕망하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장혁주의 귀화가 승인된 후 발표된 소설인 『편력의 조서』에는 그의 ‘재일’의 경험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장혁주의 사유가 상세하고도 솔직하게 재현되어 있다.

『편력의 조서』에서의 서사는 조선과 일본에서 과거와 현재에 주인공 ‘나가’ 겪었던 여러 사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기본 골자로 한다.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것처럼,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젊은 일본 여성 유키에와의 불륜으로 인한 아내 게이코와의 갈

등, 한국 여성 작가 백신애와의 연애 사건, 생모와의 사건 등 ‘나’의 다양한 여성 편력(遍歷)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소설을 통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여성 편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작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성 편력만큼, 어쩌면 비중을 더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시기부터 겪었던 작가의 ‘일본’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여 독일 이후 ‘재일’의 경험, 크고 작은 역사적·개인적 사건을 겪으면서 파생된 다양한 편력들,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민족(주의)에 대한 작가의 사유이다. 이는 작품 내부에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상세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소설 속 조선과 일본 여성에 관한 서사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사 전반에 걸쳐 산재된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다만, 소설이 작가의 경험에 내장된 기억을 기반의 자전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 기억들은 작가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새롭게 창작되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는 경계하면서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다.

작품은 주인공 ‘나’인 안광성이 일본으로 처음 이주하고 난 뒤에 일본인 아내 게이코의 권유에 따라 혼인을 맺는 장면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나’와 게이코는 큰 도리이가 늘어선 신사에서 엷은 남색의 하카마를 입은 젊은 신관의 기도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나’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고 묻고 게이코는 ‘우리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라고 답한다. 그 순간 주인공 ‘나’는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과거가 날뛰며 튀어나오고 “자신의 배후에 연결되어있는 사람들”, 즉 ‘조선(인)’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게이코와 다르게 주인공 ‘나’는 ‘새 생명을 지속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사로잡혀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 주인공의 불안과 그 불안을 야기하는 추잡한 과거는 결국 작품 내에서 주인을 자기비하와 피해망상의 길로 이끌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서사가 전개되는 동안 주인공 ‘나’를 지배한다.

나는 혼고의 하숙집 옥상에 있었다. (중략) 어디나 온통 인간이 밀치락 달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지붕들의 바다에 비쳐 보였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온 듯한 자신이 내게는 미덥지 못하다고 느껴졌다. 타관 사람이 무엇을 하러 낯선 땅으로 비집고 들어온 거냐고 누군가에게 꾸짖음을 당할 것 같은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문단에 나갈 수 없어 뼈를 깎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율을 느꼈다. 내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나라의 말로 시를 쓰게 된 것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야마다(山田)라고 하는 사람이 친어머니의 집에 식객으로 지낸 적이 있었다. (중략) 어쨌든 그는 나를 돌보는 일을 맡아 아기인 내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다. 말도 할 수 없을 때 일본 말을 배운 것은 이 아이가 처음일 거라고 말하며 그는 껄껄 웃었다고 한다. (중략) 소학교에 들어가자 나는 조선어(朝鮮語) 작문보다 일본어 작문을 더 잘했다. 일본은 내게 향수 같은 것이 되었다. 내가 일본 시단(詩壇)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두가 내게 타관 사람이라며 차가운 눈길을 주지 않을까 하고 꼭해했다. 시인 모임에 나가도 자신은 타관 사람이니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뒤틀린 심사가 늘 따라다녔다. 그런 짐착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서 오히려 짐착을 만들었다. 나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독학자인 내게는 대학의 동창 같은 사람도 없었다. 일찍부터 일본으로 건너와 출세한 지인도 없었다.²⁸⁾ (밑줄강조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당신은 밝아졌어요²⁹⁾”라는 아내 게이코의 말을 듣고 과거를 회상하는 주인공의 독백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과거 주인공이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를 창작한 계기와 타관 사람으로서 처음 일본에 생활했을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 나타난다. 말도 할 수 없을 때 일본 말을 배

28) 장혁주, 『편력의 조서』, 장세진 옮김, 소명출판, 2023, 54-55면. (이하 『편력의 조서』로 표기)

29) 장혁주, 『편력의 조서』, 53면.

위 자연스레 조선어보다 일본어 작문이 더 익숙했던 ‘나’는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알 수 없는 향수를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나’가 조선 문단이 아닌 일본 시단에서 작가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게이코가 ‘나’를 “어두운 시”만 쓰는 “예전의 그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작품 속에서 일본(문단)을 처음 경험한 나는 어딘가 “동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는 결국 그를 자기비하의 길로 빠지게 하며 소설 속에서 이는 일본으로 이주를 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인공 ‘나’가 자기비하하며 스스로 “이방인의 고독”³⁰⁾을 느끼도록 하고 자신이 지향했던 순수의 언어가 아닌 “저열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 유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 ‘나’가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민족적 차별이나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주인공 ‘나’가 “눈에 비치는 지붕도, 사람도 내게는 서먹서먹했다”고 말한 것처럼, 새로운 곳에서의 낯선 생활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지마저도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고독”³¹⁾ 때문이었다.

그 얼굴에는 특별히 구별될 만한 것이 없었다. 문득 나는 그 할머니가 매년 이 신문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중략) 공통의 것을 발견한 기쁨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게이코는 어렸을 때 이 춤을 봤다, 나도 이걸 알고 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공통의 것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이방인끼리가 아니다. (중략) 그 모든 것이 아주 친밀감 있게 보였다. 나는 이 친밀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다. 내가 아직 고향에 있었을 무렵 그곳에 와 있던 이 나라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을 뿐 전혀 마음이 융합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 상대의 생활과 담을 쌓고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

30) 장혁주, 『편력의 조서』, 33면.

31) 장혁주, 『편력의 조서』, 56면.

는 이 지역의 생활 속에 몰입해 있었다. (중략)

어딘가 낯선 젊은 부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며 팔밥이나 조림 요리 등을 내와 드시라고 말하는 씩씩한 여주인에게조차 내 마음은 녹아드는 것 같았다. 친목이 싹튼 것이다.

이 지역의 사투리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³²⁾

위의 인용문은 아내 게이코와 그들만의 결혼식을 끝내고 일본의 ‘마쓰리’를 보러 갔을 때 주인공 ‘나’의 독백이다. 주인공 ‘나’는 ‘하얀 조선옷’을 입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정 없는 얼굴”임을 인식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는 조선인이 아니라, “태곳적부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만한 것’이 없는 얼굴을 한 “잔뜩 쏟아져 나온 사람”들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자신만의 ‘집착’을 만든 주인공 ‘나’는 ‘마쓰리’를 통해서 게이코와 자신, 그리고 할머니를 포함한 축제를 즐기는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으며, 무언가 ‘공통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그는 축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서는 외지인/내지인이라는 이분법이 생성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또 다른 이주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있던 주인공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을 억압하던 ‘과거’의 것들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축제 기분”에 빠지게 된다.

타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주인공이 처음으로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 즉 자신이 타국 사람이 아니라는 기분을 느낀 상황이 ‘축제로 재현되어있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 하다. 바흐친이 밝힌 것처럼, ‘축제의 본질은 사회적 계급의 서열이나 금기 사항, 사회적 규범 등의 해체와 규격화된 관습적 체제의 오만한 관념적 틀

32) 장혁주, 『편력의 조서』, 77~78면.

을 부정하는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관념과 사회적 규범의 해체는 결국 단결을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³⁴⁾ 이러한 축제의 특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작품에 주인공이 축제를 통해 순간적으로 민족 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을 느끼는 것은 축제 연행 중에 나타나는 자유와 질서의 넘나들기 현상³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민족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작가의 사상이 투영된 장치인 것이다.

한여름이 지날 무렵 그 지역의 청년들 중 친구가 생겼다. 니키이카이 계열의 화가나 시인, 소설가 지망생이라는, 모두 예술에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도쿄의 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아직 서른도 안 된 나를 선생님이라는 경칭으로 불러주었고, 아무런 민족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화제는 중앙 문단의 시인이나 작가로 모아졌고 예술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작품을 보여주었다. 니카텐에서 두 번쯤 입선한 작품을 볼 겸 놀러오라고 해서 지노에 있는 화가의 집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작가 지망생인 청년의 집에 초대받아 가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생활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꽃밭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대로 있어줘.’
하고 간절히 빌었다.³⁶⁾

축제를 통해 의식에 변화가 생긴 주인공 ‘나’는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타관 사람이라고 냉소적 태도 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33) 바흐친의 논의는 이상룡, 「또 다른 세계를 비추는 거울-축제의 구성 원리와 그 변주」, 『축제와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65-70면 참조.

34)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15-16면.

35) 고영석, 「축제의 이념과 한계」, 『축제와 문화』, 142-144면.

36) 장혁주, 『편력의 조서』, 80-81면.

‘민족적 편견’도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을 한 명의 예술가로 인정해주는 시단에서의 동료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뿌리내리기를 결정한다. 새롭게 재편된 일상에 적응하게 되면서, 또한 새로운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주인공 ‘나’는 서서히 일상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이국의 진기함이 아니라 사소한 타향의 여정”이라고 느끼게 되고 “나는 문득 행복하구나³⁷⁾”라고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방문자가 나타났다. 알파카 털로 만든 윗옷에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색 바란 파나마모자를 쓰고 있었다. (중략) 이런 종류의 인간은 판에 박은 듯한 얼굴이다. 무슨 일일까? 나는 전형적인 표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어떤 형사보다 조금 촛티가 나고 빈틈을 보이는 구석이 색다르다고 말해두겠다. (중략)

나는 관부연락선에 한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그들의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 나를 미행하는 그들은 시모노세키에서 교대하고 오고리에서 이 어반야 도쿄에 도착할 때까지 각 경찰의 관할 구역이 바뀔 때마다 다른 형사에게 넘겨졌다. 릴레이되는 물건처럼 나는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그런 일을 당하는 동안 나는 민족을 실로 역겹게, 그리고 농후하게 느꼈다. 나는 일본 시단의 시인이다. 하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도쿄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정기 방문을 받을 때만 나는 민족이 되었다.³⁸⁾ (밑줄강조 인용자)

그러나 주인공 ‘나’는 자신이 생활에 뿌리내리는 것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어떠한 민족적 편견이 없이 대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애초에 봉쇄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일본어를 통해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해도, 자신은 식민지 조선인이기에 경찰들에게 마치 ‘물건’처럼 인수인계되고, 정기적으로 과거 조선에서의 일들을 조사

37) 장혁주, 『편력의 조서』, 93면.

38) 장혁주, 『편력의 조서』, 82-83면.

받게 된다. 이러한 경찰의 방문으로 인해 주인공 ‘나’는 세타카야를 떠나 혼고로, 도쿄를 떠나 스와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자신의 생활을 파괴하는 ‘민족’에 대한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나는 조금 전의 형사와 대결하고 있었을 때 민족의 반항심이 끓어오르고 민족적 증오를 품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것이 어리석게 역겨웠다. 길을 왔다 갔다 하며 늦더위의 햇볕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게이코의 마음에 민족 따위는 편린도 없었는데 내게는 가장 추한 형태로 민족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던 게 아닐까. (중략) 나는 언뜻 특고 형사의 완고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은 민족감정으로 응어리져 있었다.³⁹⁾

흥미로운 사실은 주인공 ‘나’가 경찰의 정기 방문으로 인해 ‘민족’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른 채 내면의 ‘민족감정’이 응어리져 있음을 인식하면서 민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외지인’이었던 주인공에게 경찰의 방문은 흔한 일이었으며 주인공 역시 그에 따라 여러 번 거주지를 옮겼다. 주인공 ‘나’가 “평소라면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즉각 민족정신이 불타올라 반항의 봉화가 타오른다⁴⁰⁾”고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 경찰의 정기 방문에 그는 그들의 차별적 대우에 분노하고 반항했다. 그러나 새로운 일상에서 아내 게이코와 ‘생활’에 뿌리를 내리기로 한 이후에는 스와에서 도쿄로 다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와 일본의 마음을 혼동하⁴¹⁾”지 않기로 다짐한다.

주인공 ‘나’가 형사의 마음과 일본의 마음을 구분 짓자 한 것은 결국 주

39) 장혁주, 『편력의 조서』, 89-92면.

40) 장혁주, 『편력의 조서』, 88면.

41) 장혁주, 『편력의 조서』, 89면.

인공 자신도 ‘민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다짐과도 같다. 형사의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민족감정을 가지게 된 나는 그것이 민족의 가장 ‘추한 형태’임을 깨닫게 된다. 그에게 있어 가장 추한 형태의 ‘민족’ 혹은 ‘민족감정’이라는 것은 「협박」에 나타난바, ‘아무 것도 모른 채’로 모여 ‘민족감정’에 휩싸여 일본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모두 민족의 죄인으로 추동하는 그것이다. 이러한 민족감정은 일본의 형사가 보여준 것처럼 일본과 조선이 다르지 않다.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늘어서 있는 산맥 같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민족’ 혹은 ‘민족감정’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탐색을 시작하게 된다.

엮드린 참회자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며 가나안이라는 말이 마술처럼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백의민족은 자국이 식민지가 된 것의 원망이나 저주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드러났다. 길 목사는 그 마음을 기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기도의 본뜻인 인간의 죄의식에 대한 각성은 두 번째가 되고 민족감정이 그에 앞서 소리를 떨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인 나에게도 이 민족의 슬픔이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중략) 그에게는 그 개인의 속죄 의식은 없었다. 민족의 비운에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⁴²⁾

위의 인용문은 주인공이 조선에 있을 당시 친아버지가 주관하는 기도회에서 겪은 일에 대한 회상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주인공 ‘나’는 과거 조선인들의 기도에는 최초의 목적인 개인의 죄의식에 관한 각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민족감정’만 남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된 의식’은 ‘현실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 즉 식민지 조선인 민중들에

42) 장혁주, 『편력의 조서』, 105-106면.

게 있어 큰 위안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떠한 비판적 사유도 없이 형성된 민족감정들은 각각 개인에게 깊이 뿌리내려 그들의 내면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는 주인공의 학창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인공 ‘나’는 학창 시절 일본인 체육 교사였던 ‘O’가 학생을 때린 일로 교사의 퇴직 결의문에 서명하고 동맹 휴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반항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명하지 않는 자는 ‘배반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동맹 휴학에 편승하게 된다. 또한 동맹 휴학으로 인해 퇴학 처리가 되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게 된 ‘나’는 퇴학당한 이들과 어울려 ‘민족 해방’을 외치게 된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프티부르 주아지 출신의 인텔리”들이었고, 그들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아나 키스트나 볼셰비키, 다다이스트나 데카다니스트, 살친당이나 조혼타도회” 등의 “갓가지 잡다한 사상이나 행동대”에게 있어 ‘민족 해방’은 그것을 빌미로 기생과 술 그리고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그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공부 따위는 하지 않겠다⁴³⁾”며 결심하기도 한다.

일본으로의 이주, 그리고 그곳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나’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다. 주인공 ‘나’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 온 식민지인의 ‘민족감정’, 모든 일본인은 곧 제국주의자이며 조선인은 민족 해방을 위해 그들을 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실제와는 많은 괴리와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곳에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민족과 ‘민족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인식하게 된다. 주인공 ‘나’는 새롭게 재편된 일상과 그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며 ‘귀화’라는 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에 편입된다. 그러나

43) 장혁주, 『편력의 조서』, 179면.

그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가 “이민족 귀화인⁴⁴⁾”이라는 정체성과 내면에 ‘생모’로 상징되는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안해 하며, 이 불안감은 결국 정신병의 증세로 발현되어 주인공이 유키에라는 이름의 다른 일본 여성과 밀회하게 하는 등 일본에서 자리잡혀 가고 있던 새로운 일상을 파괴하도록 추동한다.

나는 많이 범한 간음죄를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참회할 수도 없었다. (중략) 당장 목욕을 하세요, 하고 게이코가 말했다.

욕실에서 나오자 새로운 유카타가 꺼내져 있었다. 그것으로 갈아입고 다다미방으로 가자 도쿄노마에는 여름 국화가 꽃혀 있었다. 두 개의 판자를 아래위로 어긋나게 매어 단 장식 선반에는 수제 인형이 눈에 띄었다. 밥상이 다 준비되었고 맥주가 나와 있었다. 어딘가에서 참회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하면서 맥주를 마셨다.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환회하고 있는 듯했다. 마음은 주름살을 짓고 있는데 위장은 활기차게 움직였다.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팔밥이 나왔다. 나는 어리둥절 했다.

“무슨 일 있었어?”

동네에 제레라도 있었나 하고 멍하게 있으니,

“참 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하고 게이코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고 팔밥에 젓가락을 가져갔다. 게이코는 잠자코 그것을 보고 있었다.⁴⁵⁾

소설은 주인공 ‘나’가 유키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결국 다시 아내 게이코가 있는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밀회로 인해 주인공과

44) 장혁주, 『편력의 조서』, 289면.

45) 장혁주, 『편력의 조서』, 349면.

유키에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주인공은 그런 유키에를 외면하고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후 자신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귀향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알게 된 후 유키에는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서로 헤어지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나'는 아내 게이코가 밥상에 '팥밥'을 차려 놓은 것에 어리둥절하면서 주변에 제례가 있었냐고 묻는데, 게이코는 나에게 '참 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라고 답하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난다. 작품 결말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와 아내 게이코 사이의 대화 역시 의미심장하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에서는 제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축하할 일이 생기면 '팥밥'을 지어 먹는 풍습이 있다. 아내 게이코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축하한다는 의미로 '팥밥'을 저녁 밥상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일본으로 이주하여 귀화를 통해 일본 국민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관습과 문화를 익히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나'는 자신과 관련된 '팥밥'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멍하니 어딘가에서 '참회'를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소설의 결말은 귀화를 통해 일본 '국민'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는 단순히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에 소속되는 것일 뿐, '민족'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즉 이는 같은 국민이지만 일본 민족인 게이코와 조선 민족인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선명하게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란 단순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4. 개인의 영달 혹은 이방인의 고독, 세계라는 '사상'의 불가능성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장혁주는 제국 일본의 국책에 협력하는 글을 창작했다는 사실과 해방 이후 일본의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토록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물론

그의 행동에는 일본어 창작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개인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장혁주의 삶과 문학은 단순히 친일 혹은 협력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했다. 그에게 있어 ‘일본’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친(親)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일본으로의 이주, 나아가 귀화라는 선택은 당시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별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보다 생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별히 장혁주가 아니더라도 식민지기를 겪었던 민족의 경우라면 생활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였던 것은 분명하다.

작가 장혁주는 작가적 생애가 길었던 만큼, 그의 소설은 너무나도 다양한 진폭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프로문학 창작이론에 입각한 작품을 포함하여 그는 통속소설과 추리소설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귀화 직후에는 아동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87세에 직접 걸프전을 취재하여 그것을 토대로 한 소설 창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다양한 문학을 제국/국민국가 일본 그리고 그곳으로의 맹목적 지향이라는 그간의 연구 경향은 그의 기록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이 남긴 것처럼 식민지기 ‘재일’의 경험의 토대에서 비롯된 ‘마이너리티’의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⁴⁶⁾의 기록이자 “이론이 말하지 않는 공백들과 설명할 이론을 갖지 못한 경험의 조각들⁴⁷⁾”로 여길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두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장혁주는 민족의 배반으로 불리는 행동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며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안고자 했다. 또한 제국-식민지 체제에서의 경계인이라는 정체성 혹은 해방 이후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고독을 단편적이

46) 이는 아도르노의 자전적 성격의 글 『미니마 모랄리아』의 부제이다.

47) 윤영실, 「식민지의 민족자결과 세계민주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51, 2017, 61면.

고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신, 나아가 민족, 그리고 보편적 세계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장혁주에게 있어 일본은 ‘자연적 질서⁴⁸⁾’를 앞서가는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⁴⁹⁾’로 인해 욕망이 봉쇄되어 있긴 하지만, 그곳을 벗어난 ‘세계’에 대해 잠시나마 상상할 기회가 주어졌던 장소였다. 즉 그곳은 소속되고자 했던 욕망이 실현된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의 사상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언제든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기착지’였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에서 소설, 음악, 회화 등으로 들어 예술에서나 삶의 경과에 대한 사고에서나 일반적으로 적절한 때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짚었다.⁵⁰⁾ 그가 ‘시의성(timeliness)’이라 이름 붙인 이것은 가령 삶의 초기에 적절한 것이 훗날의 단계에 적절하지 않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즉 시간에 맞게 자연적 질서를 받아들이며 늙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사이드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종착이다. 이를 살

48) 에드워드 사이드는 유고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에서 자신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해 왔다고 말한다. 그가 오랫동안 이러한 작업에 몰두한 이유는 인간에게 자연의 영역과 세속적 인간의 역사의 구분이 엄연하게 존재하며, 두 영역 사이에는 온갖 관계가 존재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둘을 따로 떼어놓고 오직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자연적 질서’라는 것은 신체, 건강, 보살핌, 기질, 기능 활동성 그리고 병과 죽음 즉 신체와 생존에 관한 문제 전반을 일컫는다. 반대로 역사의 질서는 자연을 이해하는 것,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의 감각을 개별적, 집단적으로, 주관적, 사회적으로 창조하는 방식,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는 모든 방식들을 말한다. 인간을 비단 역사적 질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자연적 질서와 함께 보고자 하는 사이드의 시각은 장혁주뿐 아니라 친일/반일 혹은 협력/저항과 같은 윤리적 잣대 위에서 판단되는 이들을 풍부하게 해석할 가능성을 지닌다. (에드워드 사이드, 위의 책, 25면.)

49)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도서출판 길, 2018.

50) 에드워드 사이드의 ‘시의성’과 ‘말년성’ 개념을 통해 장혁주의 말년 소설을 보고자 한 것은 한수영의 논문에서 착안하였다. (한수영, 「내부망명자의 고독 -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012 참조.)

펴보기 위해 사이드는 말년에 이르러 얻게 되는 독특한 특징의 인식과 형식, 즉 예술가의 ‘말년의 양식’ 혹은 ‘말년의 작품’에 주목한다. 사이드가 인간 형성 과정 중에서도 삶의 막바지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한 양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말년성’이라는 것이 자신의 매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예술가가 이제까지 해온 기존의 사회 질서와 교감하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모순적이고 소외된 관계를 새롭게 맺은 순간이기 때문이다.⁵¹⁾

사이드가 말한 것처럼, 소년 시절 자신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던 이를 보면서 느낀 막연한 향수, 동맹 휴학 사건 이후 사회주의진영의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민족 해방’을 위해 프로문학 성격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 그와 모순되게 제국의 ‘내선일체’에 영합하는 텍스트를 썼던 것, 일본으로의 이주와 귀화, 작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소설, 통속소설, 추리소설 등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은 모두 작가이자 개인이었던 장혁주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살아남기 위한 ‘시의적’ 행동이었다. 이러한 시의적 순간들을 지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장혁주는 불가능성에 봉착하여 잠시 접어두었던 민족이라는 경계를 초월하고자 했던 ‘세계’라는 ‘사상’을 위한 ‘말년의 양식’을 탄생시킨다. 그것은 바로 가장 부침(浮沈)이 격렬했던 한국과 일본 근현대사의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형성된 ‘경계인’이자 영원한 이방인이었던 장혁주가 지닌 민족관의 한 형태였다.

한편,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말미에 창작을 위한 언어선택에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말년에 이르러 그는 평생 자신을 옹아매었던 민족(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조선어나 일본어가 아닌 ‘영어’라는 새로운 창작 언어를 선택한다. 작품의 소재 역시 종교의 시작점이나 민족의 기원 등 보다 ‘보편적인 차원’의 것을 다루기 시작한다. 즉 말년에 장혁주는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채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51) 사이드의 ‘시의성’과 ‘말년성’의 개념에 관한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 위의 책, 1장 참조.

그러나 새로운 언어와 소재, 창작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년의 양식 근저에는 긴 역사를 겪으며 형성되었던 작가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 내장된 '사상'은 명확한 체계를 가지거나 온전한 이론의 형태로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일본어 문장의 완성이라는 평생의 꿈을 철회할 만큼 작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음에는 틀림없다. 작가 자신이 말년의 작품을 '영어'로 창작한 이유와 보편적인 것을 소설의 소재로 삼은 이유에 대해 명료하게 밝혀놓지는 않았지만⁵²⁾, 그의 '말년의 양식'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삶의 막바지에서 장혁주가 닿고자 했던 '세계'는 그것의 실현 (불)가능성을 떠나, 민족이라는 경계가 해체된 어딘가, 혹은 민족/국가 등 수많은 집단이 형성되기 전의 '원초적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간 공간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는 전술했던 것처럼 식민 말기 그가 일본에 기대어 민족 해방을 꿈꿨던 것과 동일하게 세계라는 '사상'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보

52)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추정컨대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작가의 일본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점령 당국의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전 이후 일본 상황과 일본 국민이라는 장혁주의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일본은 미국의 점령지가 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미일 합작 권력(SCAPanese)은 일본의 '민주주의화', 종족적/문화적 순혈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건설이라는 각자의 이상을 가진 채 일본이라는 국민국가를 만들어내었고, 장혁주도 '일본인'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단일 민족 신화를 가진 '일본'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민족'들을 배제하고 은폐하는 마이너리티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많은 재일 조선인은 그들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미 일본 국민이었던 장혁주는 '점령 당국에 대해 제일조선인 일반과 구별되는 자신의 발화 위치의 안정성과 신용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는 장혁주는 일본의 이민족 정책을 미묘하게 벗겨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패전의 공간에서 장혁주는 자신의 특별한 위치로 인해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느꼈던 이민족 차별과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위치성으로 인해 그는 조선인들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활을 위한 '일본인'이 되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편력의 조서』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장혁주가 일본 국민이 되기 위해 그들의 문화뿐 아니라 사소한 생활 습관마저도 재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을 보면, 당시 일본 국민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무비관적으로 손쉽게 획득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가 민족을 초월하고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최후의 도구로서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적 세계를 연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이 점령 당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방식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 주는 방증이였다.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금 세계를 상상하기 위하여 선택한 ‘영어’와 ‘민주주의’ 역시 제국-식민지에서 ‘일본어’와 ‘내선일체’와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는 전후 미일 합작 권력의 이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쉬운 방식으로 당시 대다수 일본 국민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을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내린 ‘구원자’로 받아들였다.⁵³⁾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그리고 해방의 공간에서 ‘재일’ 조선인 장혁주에게는 민족주의자/민족의 배반자, 즉 조선과 일본이라는 이분법적 선택만이 강요되었다. 이처럼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갈 가능성조차 거세당한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었던 ‘민주주의’는 장혁주에게 있어 민족을 허물고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자신을 제국-식민지의 경계로 몰아붙였던 제국의 군국주의를 말소시키고 개인의 자유만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그늘에서 장혁주는, 일본어 문장의 완성이라는 꿈과 함께 기존의 사회 질서와 교감하는 시의적인 소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계인이자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생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그의 문학적 원천이자 동력이었다. 때문에, 그는 삶의 막바지에서, 다시 그것을 위해 새로운 제국인 언어인 영어(미국)에 기대어, 이전의 작품들과는 모순적이고 소외된 것이기는 하나 정치적인 것을 벗어나 ‘세계’를 꿈꾸기 시작한다. 즉 말년에 다시 표출된 그의 사상과 동시에 계획되고 발표된 그의 소설은 새로운 국민국가 혹은 민족에 다시 소속된 채로만 상상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작가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던 공간이자 나름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혁주가 말년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언어로 ‘영

53) 주지하다시피 장혁주는 한국전쟁을 그린 소설 『아, 조선』에서 미국을 한국이라는 ‘고아’를 거두어주는 구원자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어'를 선택한 이유가 '미국'과 '민주주의' 때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영어로 작품을 쓴 이유, 더불어 말년에 이르러 그가 나름대로 정립한 '세계'라는 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인도 출판사를 통해 발표했던 중작의 소설 두 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면 제한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그의 '세계'라는 사상의 기원과 그 불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장혁주 문학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만 그치고, 그의 영어 장편, 즉 말년의 양식에 관한 세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장혁주, 호테이 토시히로 엮음, 『장혁주 소설 선집』, 태학사, 2002.

장혁주, 장세진 옮김, 『편력의 조서』, 소명출판, 2023.

2. 논문

권성우, 「재일 디아스포라 여성문학에 나타난 탈민족주의와 트라우마」, 『한민족문화연구』 36, 2011, 307-331면.

김지영, 「하나의 해방, 두 개의 시선」,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315-343면.

_____, 『장혁주 일본어소설 연구: 『인왕동시대』, 『우수인생』, 『노지』, 『개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철,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장혁주와 김사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2006, 141-169면.

김학동, 「張赫宙 문학의 정서적 배경: 親日로 표출된 生來의 열등의식과 早婚의 갈등」, 『日語日文研究』 64, 2008, 37-54면.

_____,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의 『편력의 조서』(遍歴の調書)론-가족에 대한 회한의 해소를 위한 자학적 글쓰기」, 『인간연구』 16, 2009, 163-190면.

신서영, 「장혁주의 소설 협박(脅迫)에 나타난 ‘민족’과 ‘언어’에 대한 고찰」, 『문화와 융합』 43, 2021, 427-440쪽.

신승모, 「도쿄 이주(1936년) 후의 장혁주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의 모색-연속과 변용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0, 2006, 321-358면.

_____, 「식민지기 일본어 문학에 나타난 ‘만주’ 조선인상-‘만주’를 바라보는 동시대 시선의 제상(諸相)」, 『한국문학연구』 34, 2008, 393-428면.

임태훈, 「상호 교환되는 해방 국민과 귀화 국민: 장혁주의 「협박」(1953)에 관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 78, 2019, 233-255면.

윤영실, 「식민지의 민족자결과 세계민주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51, 2017, 53-108면.

장세진, 「귀화의 에스닉 정치와 알리바이로서의 미국 ‘해방’ 이후 장혁주의 선택과 「아, 조선(嗚呼朝鮮)」(1952)-」, 『현대문학의 연구』 45, 2011, 35-73면.

_____, 「기지(基地)의 ‘평화’와 전장의 글쓰기-장혁주의 한국전쟁 관련 텍스트(1951~1954)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07, 2019, 55-88면.

조가유,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 소설의 리얼리즘 연구-「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 사나이], 「산령」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2021, 149-181면.
- 한수영, 「내부망명자의 고독 -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 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012, 263-302면.
- 曹恩美, 「在日朝鮮人青年の憂愁: 張赫宙作「岩本志願兵」をめぐって, 『言語・地域文化研究』 16, 2010.
- 梁姬淑, 「張赫宙 「脅迫」 論-実存的不安をめぐる作者の軌跡, 『昭和文学研究』 62, 2011.

3. 단행본

- 글로벌컬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선집』, 소명출판, 2018.
-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_____, 『풍화와 기억』, 소명출판, 2016.
- 다카시 후지타니, 이경훈 옮김,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푸른역사, 2019.
-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도서출판 길, 2018.
-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오구마 에이지, 전성곤 옮김, 『국민의 경계』, 소명출판, 2023.
- 오테영, 『잔여와 잉여』, 소명출판, 2022.
- 에드워드 사이드, 정호연 옮김,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마티, 2023.
-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 2021.
- 존 다우어, 최은석 번역, 『페베를 꺼안고』, 민음사, 2009.
-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 _____, 『사상과 성찰』, 소명출판, 2011.

<Abstract>

The origin and impossibility of the idea of the 'world'

– focusing on Jang Hyuk-joo/野口赫宙's “The Threat” (1953) and
“The Protocol of Wondering” (1954)

Choi, Seok Yeol

Focusing on Jang Hyuk-ju's view of the nation, this article analyzes his autobiographical novels “The Threat” and “The Protocol of Wondering” to explore how the artist's experience in Japan contributed to his literary practice and formation of ideas. In his early creative activities, Jang dealt with national issues through professional literature, but at the end of the colony, he rather showed an attitude of denying the nation. His attitude seems contradictory.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characteristic of his view of the nation was a strong desire to leave the colony and become “a part” of empire/Japan, or somewhere even if it was not necessarily “Japan”, and on the other hand, he recognized that nationalism had to be broken down, leaving the impossibility of realization.

In order to examine thi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his autobiographical novels “The Threat” (1953) and “The Protocol of Wondering” (1954).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amine how his view of the nation was formed through “The Threat.” In “The Threat”, the artist's thoughts stand out among the imperial-colonial system viewed by the artist, the appearance of Koreans residing in Japa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loss, an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them.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how it influenced his view of the nat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Jae-il” in “The Protocol of Wondering”. In the end,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how Jang Hyuk-ju's view of the nation and the experience of Japan are interacting in his literary journey, and to examine the origin of the artist's idea of “the world.”

Key words: nationalism, Jang Hyuk-joo, Imperial Japan, an imperial-colonial system, minority, liberation, Ethnic

투 고 일: 2024년 11월 27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